

626. 다 읽은 책은 아무데나 두지 말고 책장에 잘 () 뒀다.
① 얹혀 ② 꽃아 ③ 뽑아 ④ 쌓아
627.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()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
① 청했지만 ② 해쳤자만 ③ 면했지만 ④ 가렸지만
628. 서류를 ()으로/로 꾸며서 대출을 받았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.
① 진심 ② 거짓 ③ 통계 ④ 이자
629. 도로가 꽉 막히던 시내를 () 기분이 한결 상쾌해졌다.
① 밝혀내자 ② 벗어나자 ③ 줄어들자 ④ 가리키자
630. 저 둘은 ()인데 외모나 성격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네요.
① 쌍둥이 ② 약혼녀 ③ 어르신 ④ 성직자
631. 해가 질 때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()이/가 점점 길어졌다.
① 직선 ② 걸음 ③ 노선 ④ 그림자
632. 자동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쳐서 ()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.
① 보행자 ② 운전자 ③ 사용자 ④ 안내원
633. 처음에는 낯선 것이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() 익숙해질 거예요.
① 이왕 ② 마침 ③ 워낙 ④ 차차
634.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? ()으로/로 하시겠어요?
① 현금 ② 환불 ③ 일시불 ④ 일교차
635. 나는 장난을 치려고 동생의 신발을 몰래 () 뒀다.
① 들켜 ② 접어 ③ 감춰 ④ 꺼내

636.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도 다들 ()을/를 잘 지켰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다.
① 용기 ② 원리 ③ 질서 ④ 안내
637.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()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.
① 오직 ② 마냥 ③ 으레 ④ 예컨대
638. 어디에선가 날카로운 () 소리가 들리자 나는 깜짝 놀라 그리로 달려갔다.
① 한숨 ② 비명 ③ 하품 ④ 콧노래
639.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도 그는 () 사과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.
① 정작 ② 끝내 ③ 한편 ④ 몰래
640. 나와 언니는 뭐든지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사이좋은 ()이다.
① 형제 ② 남매 ③ 이웃 ④ 자매
641. 저 가게는 ()이/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뭘까?
① 이발 ② 장사 ③ 이동 ④ 매매
642. 저 식당은 ()이/가 너무 많아서 늘 조금씩 남겨요.
① 양 ② 질 ③ 금액 ④ 냄새
643. 처음에는 ()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.
① 명확해 ② 신중해 ③ 생생해 ④ 불가능해
644.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() 겨우 일어나서 학교에 갔어요.
① 깨워야 ② 토해야 ③ 환해야 ④ 해쳐야
645. 나는 룸메이트하고 인사를 하기가 싫어서 () 자는 척했다.
① 강제로 ② 저절로 ③ 우연히 ④ 일부러

646.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코를 ()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.
① 짚어서 ② 골아서 ③ 짚어서 ④ 핥아서
647. 아기가 엄마 품에 ()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.
① 안겨서 ② 눈떠서 ③ 당해서 ④ 다물어서
648.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야단을 맞으니 너무 () 엉엉 울었다.
① 소심해서 ② 서러워서 ③ 점잖아서 ④ 정신없어서
649. 어제 밤을 새웠더니 오늘 하루종일 너무 () 정신을 못 차렸어요.
① 졸려서 ② 반겨서 ③ 쓸려서 ④ 물려서
650.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영수증을 잘 () 버리셔야 합니다.
① 풍겨서 ② 맞서서 ③ 찢어서 ④ 질려서